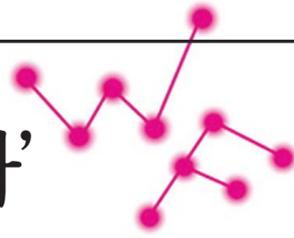


여성이야기 힐링메시지 '영화로 위로받다'



10~15일, 제11회 광주여성영화제 '태어나길 잘했어' 등 52편 무료 광주극장·롯데시네마·온라인 상영 5·18특별전...감독 토크프로그램도

올해로 11회를 맞는 광주여성영화제가 여성의 삶을 다룬 다양한 영화를 통해 장기화한 코로나 19 속에서 더욱 힘들어진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

제11회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채희)가 오는 10일 개막해 옛새간 광주극장, 롯데시네마(충장로)를 비롯해 광주여성영화제 온라인상영관에서 총 52편의 여성 영화를 선보인다.

'새로운 길을 내자'는 의미인 'ZERO(再路)'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최진형 감독의 '태어나길 잘했어'로 선정됐다. '태어나길 잘했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살며 성장하는 춘희의 이야기를 그린다.

의미있는 특별전도 열린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초청작 6편이 상영된다. 아울러 여성 감독들의 작품을 보고 얘기를 함께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감독 대 감독: 프랑수아즈, 우주인 조안을 만나다'는 '프랑스 여자'의 김희정 감독이 신에 이운정 감독의 작품 '우



주인 조안'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스페셜 토크: 영화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 시간에서는 '사마에게' 상영 후 변영주 감독과 토크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 광주극장과 친구들'은 '국도극장' 상영 후 진행된다. '국도극장'의 촬영지이기도 한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 광주극장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영화도시 광주, 광주극장과 친구들'을 주제로 코로나 19 시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가야 할 극장과 영화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전지희(국도극장 감독), 김채희(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김형수(광주극장 전무) 등

이 참여한다.

올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극장에 대한 추억을 다시 생각해보고 극장의 의미를 찾는 전시 프로젝트 '극장전'도 펼쳐진다. 총 10편의 작품이 30일까지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객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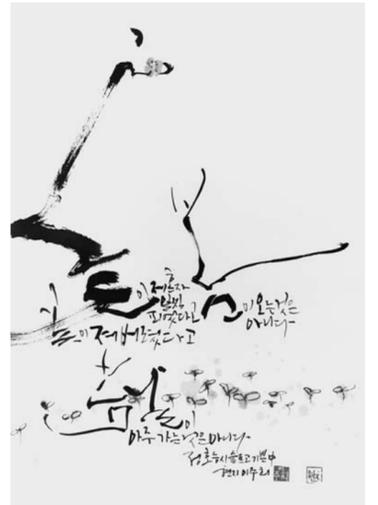
이밖에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마더로드', '우리 일회용이 아니니까', 여성들의 치열한 노동현장을 볼 수 있는 '깃발, 창공, 파티', '보라보라', 기지촌 여성의 삶을 다룬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등도 상영된다. 또 올 한해 많은 주목을 받은 '남매의 여름밤',

광주여성영화제

'69세'도 스크린에 오른다. 영화제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개막작 '태어나길 잘했어'를 비롯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외롭고 높고 쓸쓸한', '밤엘: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나는 보리'가 매일 상영된다.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하면 관람할 수 있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7시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전편 무료 상영. 사전예약 필수. 문의 062-515-65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전남서도대전

7~10일 예총회관 백련갤러리



이주희 작 '꽃이 저 혼자 피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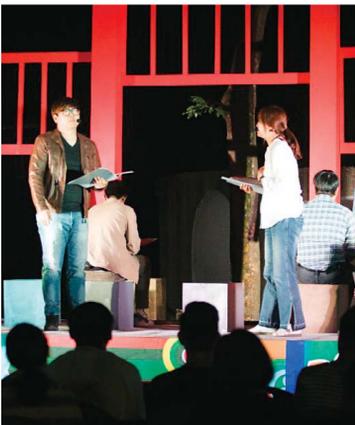
제13회 광주·전남서도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예총회관 백련갤러리에서 열린다.

(사)한국서도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하는 올해 대회에는 한글, 한문(해서·행서·예서), 문인화,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462점이 출품됐으며 이중 대상 1점, 우수상·특별상 4점 등 모두 254점이 입상했다. 심사위원회는 작품의 구성, 필력,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시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이주희 작가의 캘리그래피 '꽃이 저 혼자 피었다고...'를 비롯해 우수상 수상작 강성철의 '백일명금', 서순정의 '낙화천만', 이부호의 '아침이슬', 조성원의 '인일언'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특별상을 수상한 강성갑·김부겸·나영심·이대욱의 작품도 전시된다.

그밖에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종남 작가의 '휘호대객'을 비롯해 고두순·김규제·김삼수·안순순·박재관·박순자·박은희 등 추천작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달들의 웨딩마치'

바람꽃, 7~8일 공동예술극장

극단 바람꽃(대표 한종신)의 여섯번째 정기공연 '건달들의 웨딩마치'가 오는 7~8일 오후 5시 공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

'건달들의 웨딩마치'는 20세기 브로드웨이를 이끈 미국의 극작가인 닐사이먼의 작품으로 결혼은 멀리하고 여자, 술을 좋아하며 일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버지는 항상 큰아들을 건달이라고 부르며 무시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원광연 광주연극협회장이 연출을 맡았으며 노희철·한종신·김예성·임근영·노은·자·신혜은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지난 2015년 창단한 극단 바람꽃은 마당극, 인형극, 뮤지컬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문의 010-4016-53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제31회 광주음악제 '전쟁과 평화'

피아노·현악·관악...8일까지 ACC

제31회 광주음악제가 올해 6·25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열리고 있다.

이번 음악제는 피아노·현악·관악 등 다양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오는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린다.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음악분야가 특별초청대 관객을 만나며 매 공연마다 한민족의 영혼이 담긴 노래 '아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된다.

6일 오후 7시30분에는 'Bitter Scar, 상흔'이 관객과 만난다. 6개의 재즈밴드 연주로 전쟁의 상흔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다. 공연에는 장애인 밴드인 해와 달이 출연하며, 김성광 밴드, NS Jazz Band, The Sweet, 광주라틴밴드, 강윤숙의 재즈여행 등 6개의 밴드가 무대에 올라 각자가 지닌

연주의 특성을 살려 무대를 꾸민다. 존 레논의 'Imagine'을 비롯해 영화 '윈들러 리스트' OST,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중 '지나지역' 등을 들려준다.

합창 공연 '두 개의 나라, 한 영혼'은 7일 오후 7시 30분 열린다. 지역의 대표 작곡가인 박지영·안재범·강현우·황성호·김성훈·신동민·김진선·김소정 등이 작곡한 창작 합창곡을 광주성악가협회 회원 9명이 앙상블로 선보이고,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최준영)이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Heim, 집으로' (8일 오후 5시 30분)로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이는 생활음악연주회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리더스플루트앙상블, 레인뮤즈-헬로뮤지컬의 허밍앙상블, 코스모스 아코디언앙상블, 칸타레 앙상블, 히비스밴드, 웅달샘 오카리나앙상블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지난 3-5일에는 '화음(和音) 소리로 화합



클링트리오

하다, '적과 동지', '전쟁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렸다. 무료관람. 문의 010-9444-40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일선 선교사 사택 100년을 기억하다

공연단체 순수, 7일 클래식 무대

공연예술전문단체 순수가 오는 7일 오후 6시 우일선 선교사 사택(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2020 시즌 두번째 공연을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로 공연 제목은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다.

광주시 2020공연예술진흥사업의 지원을 받아 열리는 공연에는 단장 및 음악감독 양은혜, 지휘 김지형, 해운 챔버앙상블 단원 20명과 소프라노 윤현나가 등장해 아름다운 음악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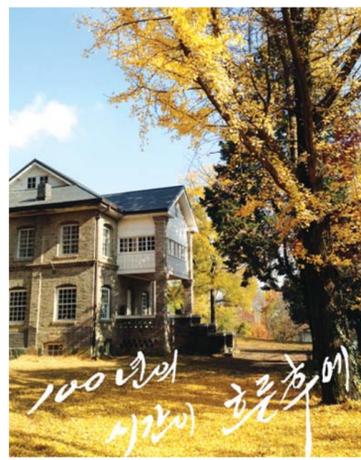
1부에서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

곡을 시작으로 바흐 오케스트라 모음곡 2번 중 '바디네리', 헨델 '성 할렐루야', 베토벤 '환희의 송가' 등을 들려준다.

2부 공연은 영화 '시네마 천국' '미션', '미션칼리파 부인', '단순한 형식',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등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으로 채워진다. 또 '오즈의 마법사'와 'My fair lady' OST도 선보인다.

한편, 순수는 지난 2013년 창단 이후 양림동 근대사문화유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을 펼쳐 양림동 주민들을 비롯해 광주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매 공연마다 장소와 인물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논어와 대학,中庸 등 고전을 2년에 걸쳐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호남학과·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교수)은 철학교육연구센터(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와 함께 4기 과정으로 진행되는 '호남학당, 열린고전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전남대가 지역민과 지역인 후속세대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적 인문지역학'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사서정독' 프로그램 일련인 이번 강좌는 제1기 '논어맹자 정독: 감(感)과 응(應)을 세기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오는 13일부터 매주 1회씩 16주간 진행되며 강사는 김태안 인문학자 맡는다. 제2기는 '대학·중용'을 예정하고 있다.

강의는 전남대 융복합관(옛 대학본부 건물) 내 호남학과 강의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530-27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도굴
3관	담보
4관	도굴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6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9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7관 씨네커를	도굴, 소리도 없이
8관 씨네커를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소리도 없이 미스터트롯: 더 무비, 아이 빌리브 나인스 게이트: 아홉 번째 살인

광주문화예술회관 | 문의 062)613-8353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 문의 062)530-2710

연극 '청문래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